

Modern students of the mind-body problem almost without exception understand it to be about _____ . I have never heard anyone in contemporary philosophical debates put the question from the alternative starting point, that is, how matter may be explained in terms of consciousness. Here is a typical example of the prevailing view: 'how much of mind is a physical entity'. It goes on: 'much of the function of the mind is built into the systems and organs of the body itself,' taking it as quite uncontentious that mind actually has a function in bodily terms like the spleen or a kneecap. The question for this view is *what* is the role of consciousness in a physical system, not *whether* consciousness is capable of any role at all. 'Our bodies possess minds,' someone with the view writes as though minds were things like cakes or handbags which could be owned, property to be bought or sold.

- ① the attempt to explain mental states in physical terms
- ② the focus on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mind and body
- ③ seeking what is wro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 and body
- ④ proving the heavier weight relatively attached to mind than to body
- ⑤ what really the notion of consciousness is independent of any other things

해설

Modern students of the mind-body problem almost without exception understand it to be about the attempt to explain mental states in physical terms.

몸과 정신의 문제를 공부하는 현대의 학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것을 정신적 상태를 물리적 관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한다.

*보통 도입부의 빈칸은 도입부의 역할상 이후에 전개될 지문 전체에 대한 중심소재의 소개, 혹은 주제에 대한 직, 간접적 암시, 혹은 주제 그 자체 등을 정답으로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소재나 주제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면, 바로 선지를 보고 정답 찾기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몸과 마음의 문제가 중심소재이고, 이에 관해 현대의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트렌드는 바로 mental을 physical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I have never heard anyone in contemporary philosophical debates put the question from the alternative starting point, that is, how matter may be explained in terms of consciousness.

나는 현대의 철학적 논쟁들에서 누구도 그 문제를 대안적 시작점, 즉, 어떻게 물질이 의식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도 있는가로부터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alternative point를 대안적 관점, 즉,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을 뜻하고 게다가 이 문제가 몸과 마음의 이원론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alternative point는 첫 문장에서 말한 physical의 우세에 대한 반대가 될 것입니다. 즉, alternative point는 mental의 우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consciousness로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습니다.

100점의 Bible Hyper 빈칸추론 Reload #4

Here is a typical example of the prevailing view: 'how much of mind is a physical entity'. It goes on: 'much of the function of the mind is built into the systems and organs of the body itself,' taking it as quite uncontentious that mind actually has a function in bodily terms like the spleen or a kneecap.

여기 그 지배적인 관점의 전형적인 예가 있다: '정신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물리적 실체인가'. 그것은 실제로 비장이나 슬개골처럼 육체라는 관점에서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매우 확정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정신의 기능 중 대부분은 몸 그 자체의 체계들과 기관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

*alternative point Vs prevailing view 의 관계이므로, prevailing view는 physical의 우세입니다. 즉, 이 문장 전체가 physical의 우세를 뜻할 것임을 이미 prevailing view에서 알 수 있고, 따라서 실전이었다면, 정확한 독해로 인한 시간 낭비가 필요치 않은 부분입니다.

The question for this view is what is the role of consciousness in a physical system, not whether consciousness is capable of any role at all. 'Our bodies possess minds,' someone with the view writes as though minds were things like cakes or handbags which could be owned, property to be bought or sold.

이런 관점에 대한 질문은 의식이 어떤 역할이든 할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육체적 체계 속에서 의식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 관점을 가진 누군가는 마치 정신이 소유될 수 있는 케익이나 핸드백 같은 것, 사거나 팔 수 있는 재산 같은 것이라도 되는 듯 '우리의 몸은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

*역시 계속해서 prevailing view에 대한 소개.
